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과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노소영[†]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2년 6월 8일 접수: 2022년 8월 23일 수정: 2022년 8월 24일 채택)

The Effects of Strengths Knowledge and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So-Young Roh[†]

Department of Nursing, Songwon University

(Received June 8, 2022; Revised August 23, 2022; Accepted August 24, 2022)

요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과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로 G시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관계수, 통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강점인식은 진로정체감($\beta = .384,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고 임상실습 감정노동은 진로정체감($\beta = -.370, p < .001$)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연구모형은 진로정체감을 45.1%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증진을 위해 감정인식을 증가시키고 임상실습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강점인식, 임상실습, 감정노동, 진로정체감

Abstract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s of strengths knowledge and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rd and 4th grade students attending the Department of Nursing in G c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controlled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strengths knowledge($\beta = .384, p < .001$) showe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identity and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beta = -.370, p < .001$) showed a negative effect on career identity. The study model accounted for 45.1% of career ident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easures to increase strengths knowledge and reduce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are needed to promot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Nursing student, Strengths knowledge, Emotional labor, Clinical practice, Career identity

[†]Corresponding author

(E-mail: rsy2010@naver.com)

* This study i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Songwon University in 2020(A2020-0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개인의 생애주기 중 학교에서 직업장면으로 변화를 준비하는 시기로[1] 특히 생애 첫 직업을 위해 진로 방향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한 개인의 진로발달에서 매우 중요하다[2]. 진로정체감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면서 형성되므로[3] 대학생 시기는 진로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시기라 하겠다. 특별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적성과 흥미보다는 유리한 취업 때문에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4,5] 입학과 동시에 간호사라는 진로가 결정되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미흡하므로[6]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는 진로정체감의 형성은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간호대학생 시기에 진로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신규간호사의 경우 직업세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직무만족도는 낮고 이직의도가 높고[7], 대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 확립은 졸업 후 직업세계 적응을 돕는 밑거름이 되므로[8], 간호대학생 시기에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 인간의 긍정적 특성에 주목하면서 긍정심리학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인들이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5], 긍정적 심리자본[9], 심리적 안녕감[10]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이들 변인들은 진로발달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9,10]. 강점은 개인의 긍정적 특질로 타고난 능력과 더불어 지식과 기술로 길러진 재능으로 정의되며[11] 강점인식은 자신의 강점에 대해 인지하고 지각하는 것으로[12] 자신의 강점에 대한 인식은 자신에 대해 바람직한 인지와 태도를 길러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강점인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4,15], 진로성숙도[14], 진로준비행동[15], 진로정체감[13] 등 진로발달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강점인식이 높은 간호대학생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5] 이러한 결과는 단 한편의 연구에 의한 것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

과 진로발달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강점인식이 진로정체감을 예측하는 변수인지 재검증을 해 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은 미래 전문직 간호사로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갖추어간다. 강의실 환경의 이론교육과는 달리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을 만나는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은 예비간호사로서 기대되는 태도와 행동을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16], 환자 권리의 신장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고객에 대한 태도, 표정, 감정 표현을 조직의 규범에 따라 부합된 감정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는 다르게 인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여 표현하므로 인해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다[17]. 임상실습 감정노동 수준이 높은 간호대학생일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18],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또한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임상실습 감정노동은 진로정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명확한 심상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 간호대학생은 3, 4학년 동안 임상실습을 하면서 감정노동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학과 특성을 갖고있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감정노동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설명하기 위한 요인으로 관심 두어야 할 주요 변인이라 할 것이다.

강점인식은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임상실습 감정노동은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각 확인되었으나 이는 거의 1-2편에 의한 결과이며 강점인식, 임상실습 감정노동 및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점인식과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진로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간호교육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촉진하는데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강점인식, 임상실습 감정노동, 진로정체감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

감 정도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강점인식, 임상실습 감정노동,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강점인식,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3, 4학년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 취지, 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효과크기는 .15, 검정력은 .95, 유의수준은 .05, 예측변인은 9개(일반적 특성 6개, 연구변인 3개)로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166개로 확인되었으며, 탈락율과 회수율을 고려하여 설문 대상자를 190명으로 하였다. 응답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을 보인 4부를 제외한 후 186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서면 및 구두로 설명한 후 대학과 학과의 허락을 받아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다. 서면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로 실시하였고 설문이 끝난 후 설문지는 곧바로 회수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감사의 표시로 제공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강점인식

강점인식 도구는 Govindji와 Linley[12]가 개발한 강점인식척도(Strengths Knowledge Scale)를 Kim과 Lee[22]가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 당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Likert 7점 척도이다. 부정문항은 역으로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강점인식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Kim과 Lee[1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2.2. 임상실습 감정노동

감정노동 도구는 Morris와 Feldman[23]의 연구를 토대로 Kim[2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당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2.2.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 측정도구는 Holland 등[25]이 개발한 직업상황검사(My Vocational Situation:NVS)를 Kwon과 Kim [27]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14개의 문항으로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모든 문항은 부정문항이므로 역환산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과 Kim [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였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강점인식, 임상실습 감정노동, 진로정체감의 수준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강점인식, 임상실습 감정노동, 진로정체감 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강점인식과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진로정체감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통제회귀분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강점인식, 임상실습 감정노동, 진로정체감 정도

본 연구에서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강점인식의 평균은 4.71점(SD=.67), 임상실습 감정노동의 평균은 3.04점(SD=.52), 진로정체감의 평균은 2.61점(SD=.5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강점인식 평균은 7점 만점에 4.71점으로 Kim[5]의 4.66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Kim[5]의 연구는 1-4학년 대상이기에 정확한 비교 고찰을 위해 추후 학년별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 정도를 확인해 볼 필

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감정노동 평균은 5점 만점에 3.04점으로 Kim[21]의 3.03점과 Noh[27]의 3.05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Oh 등 [20]의 3.80점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감정노동은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는 실습 part(병동,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에 따라 다르고[28], 실습이 이루어지는 기관의 조직문화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21]으로 해석된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평균은 4점 만점에 2.61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동일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21]의 2.64점과 Kim과 Ko[29]의 2.64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정도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정도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는 지원동기, 전공만족도로 확인되었으며 표 2와 같다. 사후 검정(Scheffé test) 결과, 지원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안정적 직업과 주위 권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의 정도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지원동기와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대상 및 도구를 이용한 Kim[21]과 Lee와 Jang[3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Kim과 Ko[29]의 연구에서는 이들 특성 외에 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N=186)

Variables	M±SD
Strengths knowledge	4.71±.67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3.04±.52
Career identity	2.61±.50

Table 2. Degree of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6)

Characteristics	Range	n(%)	Career identity	
			Mean±SD	t / F (p) Scheffé
Age	≤ 23	128(68.8)	2.55±.46	-1.636 (.103)
	≥ 24	58(31.2)	2.68±.56	
Sex	Female	157(84.4)	2.56±.48	.914 (.361)
	Male	29(15.6)	2.66±.56	
Grade	3rd	88(47.3)	2.59±.51	.341 (.734)
	4th	98(52.7)	2.56±.48	
Motive for applying	Aptitude, Interest ^a	58(31.2)	2.85±.44	14.973 (.000) a>b,c
	Stable Job ^b	93(50.0)	2.44±.47	
	Another's advice ^c	35(18.8)	2.48±.48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a	56(30.1)	2.81±.54	12.682 (.032) a>b,c
	Moderate ^b	119(64.4)	2.50±.44	
	Dissatisfaction ^c	11(05.9)	2.16±.43	
Economic state	High	13(07.0)	2.61±.52	.062 (.940)
	Medium	153(82.3)	2.57±.49	
	Low	20(10.8)	2.60±.48	

상실습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3, 4학년 대상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3. 대상자의 강점인식, 임상실습 감정노동, 진로정체감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강점인식, 임상실습 감정노동,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강점인식과 임상실습 감정노동($r=-.160, p=.029$)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강점인식과 진로정체감($r=.483, p<.001$)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진로정체감($r=-.483, p<.001$)은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점인식이 높은 학생이 진로정체감도 높다는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Kim[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높은 학생이 진로정체감이 낮다는 연구결과는 Oh 등[20]과 Kim[2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높아 진로정체감이 높고, 임상실습을 하면서 감정의 부조화를 경험하는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형성하지 못해 진로정체감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3.4. 대상자의 강점인식과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진로정체감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인 지원동기, 전공만족도를 더미변수 처리한 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765-.950으로 모두 .10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IF)는 가장 큰 값이 1.741로 10을 넘는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이 충족되어 독립변수들 사이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검증한 결과 Durbin Watson 지수가 1.935($1.862 < d < 2.138$)로 나타나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정체감에 대한 회귀모형은 $F=26.316$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하였고,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451으로 연구변인들이 진로정체감을 45.1% 설명하였다. 독립변인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영향은 강점인식($\beta =.384, p<.001$)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실습 감정노동($\beta =-.370, p<.001$)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 4와 같이 확인되었

Table 3. Correlation among Measurement Variables (N=186)

Variables	1 r(p)	2 r(p)	3 r(p)
Strengths knowledge	1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160 (.029)	1	
Career identity	.483 (<.001)	-.489 (<.001)	1

Table 4. Influence of Variables on Career Identity (N=186)

Variables	β	t (p)	Ad. R^2	F (p)	Durbin Watson
Strengths knowledge	.384	6.629 (<.001)	.451	26.316 (<.001)	1.935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370	-6.535 (<.001)			

다. 강점인식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정체감도 높다는 결과는 Kim[5]의 연구와 일치하였는데, Kim[5]의 연구에서는 1-4학년으로 본 연구와 대상학년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앞으로 강점인식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결과와 신뢰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낮다는 결과는 Oh 등[20]과 Kim[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과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촉진하는데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증진을 위해서 강점인식은 높이고 임상실습 감정노동은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생들 대부분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므로[31] 강점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담 시 학생 자신의 강점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끌어내어 이야기하도록 함으로써 강점인식 수준을 높힐 수 있고[13] 임상실습 지도 시 다양한 임상실습 장면에서 강점이 발휘된 사례들을 이야기하게 해 봄으로써 강점인식 수준을 높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 외 활동 프로그램에 강점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상실습 감정노동은 학생들이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는 기관의 조직문화라는 환경적 요인[21]과 회복탄력성[28], 대인불안[32] 등 같은 개인 내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적 요인에서는 임상실습기관의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건전한 조직문화의 필요성에 대해 병원의 간호조직과 지속적이고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 내적 요인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생일수록[28], 대인불안 수준이 낮을수록[32] 감정노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계획해 볼 수 있겠다. 간호대학

생의 회복탄력성은 비판적사고 성향과 공감역량[33], 정서지능[34], 사회적지지[35], 임상수행능력[36] 등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들 요인이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을 통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하겠다. 비판적 사고의 촉진은 간호교육인증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호역량으로 모든 간호교육 현장에서 비판적 사고 관련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공감역량과 정서지능은 인문사회 교과목과 연계하여 접근해 볼 수 있겠고, 사회적 지지는 학생상담 활동 및 선후배 멘토링 활동 등을 통해 촉진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이 주로 관찰 위주이기 때문에 부족한 실습역량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대인불안은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36] 의사소통능력을 촉진함으로써 대인불안을 낮추어 감정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촉진하기 위해 강점인식을 증가시키고 임상실습 감정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적용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T. W., Ng, D. C. Feldman, "Organizational embeddedness and occupational embeddedness across career stag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70, NO.2, pp. 336-351, (2007).
2. Y. S. Noh, C. Y. Jyu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Adaptability, Proactive Personali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48, No.3, pp. 107-129, (2016).

3. D. V. Tiedenan, R. P. O'hara,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1963).
4. M. S. Kim, "The Influence of Self-Control, Social Responsibility,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7, No.4, pp. 248-258, (2021).
5. K. H. Kim, "The Influence of Strengths Knowled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3, NO.3, pp. 363-370, (2022).
6. J. A. Seong, E. Y. Yeom, Y. S. Do,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Vol.2, NO.2, pp. 29-38, (2012).
7. J. W. Lee, N. Y. Lee, Y. S. Eo, "Pat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 pp. 311-320, (2018).
8. N. K. Kim, "Patterns of Career Choice and Career Identity of Students in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12).
9. I. S. Park, S. S. Ahn,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career maturity: Focusing o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9, NO.2, pp. 27-53, (2019).
10. K. S. Lee, S. A. Ahn, "Effects of Nurses Imag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2), pp. 809-821, (2017).
11. D. O. Clifton, E. Anderson, G. G. Molina, StrengthsQuest, Gallup Press, (2002).
12. R. Govindji, P. A. Linley, "Strengths use, self-concordance and well-being: Implications for strengths coaching and coaching psychologists", *International Coaching Psychology Review*, Vol.2, NO.2, pp. 143-153, (2007).
13. J. W. Lee, K. H. Lee, "The Influence of Strengths Knowledge on Undergraduate Student's Adaptation: Mediating Effect of Strengths Use and Career Ident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8, NO.1, pp. 5-228, (2017).
14. M. J. Kim, H. K. Lee, "Th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s Use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of Strengths Knowledge and Career Maturity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5, pp. 1811-1830, (2014).
15. J. E. Lee, Y. A. Cho, "Relationship between Strength Knowledg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49, NO.3, pp. 113-132, (2017).
16. E. Y. Yeom, "Awareness of Emotional Lab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raduation Yea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5, pp. 177-189, (2017).
17. Kang, S. Y, "Impact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labor on burnout during nursing practice in a hospital: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Administration*, Vol.21, NO.1, pp. 77-87, (2015).
18. N. Y. Lee, S. H. Kim, Y. S. Kim,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Labor, Clinical Practice Stress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28, NO.3, pp. 619-629, (2016).

19. E. Y. Yeom,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Lab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4, pp. 320-330, (2017).
20. J. W. OH, B. Y. Huh, M. R. Kim, "The Effects of Nurses' Work Environment,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on Nursing Students Perceived Career Ident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Vol.10, NO.4, pp. 59-74, (2019).
21. K. H. Kim,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2, pp. 116-123, (2022).
22. M. J. Kim, H. K. Lee, "Journal of Counseling : Th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s Use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of Strengths Knowledge and Career Maturity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5, pp. 1811-1830, (2014).
23. J. A. Morris, D. C. Feldman, "The Dimensio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1, NO.4, pp. 986-1010, (1996).
24. M. J. Kim, "Research Articles : Effects of the Hotel Employee's Emotional Labor upon the Job-related Attitud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21, NO.2, pp. 129-141, (1998).
25. J. J. Holland, D. C. Gottfredson, P. G. Power,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9, NO.6, pp. 1191-200, (1980).
26. Y. H. Kwon, J. N. Kim.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13, NO.2, pp. 216-229, (2002).
27. Y. G. Noh,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actice Stress,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25, NO.3, pp. 461-470, (2019).
28. S. Y. Kang,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Resilience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Emotional Lab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8, pp. 181-198, (2019).
29. N. S. Kim, Y. J. Ko,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1, pp. 211-218, (2020).
30. A. R. Lee, H. J. Jang, "Th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6, pp. 2427-2442, (2020).
31. M. Buckingham, *Find Your Strongest Life*, Edinburgh: Thomas Nelson, (2009).
32. E. Y. Yeom, "The Influence of Experience of Nurses' Incivility and Social Anxiety on Emotional Labor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4, pp. 293-302, (2019).
33. K. H. Baek, Y. M. Yang, M. O. Cho,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and Empathy on Resilience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7, pp. 57-66, (2021).

34. Y. E. Lee, E. Y. Kim, S. Y. Park, "Effect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23, NO.3, pp. 385-393, (2017).
35. N. H. Kim, S. Y. Park,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Resilience of Student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3, pp. 194-202, (2019).
36. H. J. Lee, H. Y. Lee, K. J. Kang, "The effect of clinical performance,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career maturity up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12, NO.1, pp. 425-437, (2017).
37. Y. S. Kim, "The Effect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 on Interpersonal Rel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0, pp. 773-782, (2018).